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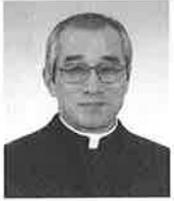
숲 정 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2006년 7월 2일
(나해)

강론 ...

聖雄(성웅) 김대건 신부님



김봉희 신부
(치명자산 성지)

우리나라에도 충무공같은
영웅호걸이 제쳤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성웅이라 존경받
는 분이 계신다면 단연 김대건
신부님 뿐 아니실까 싶다. 재
능과 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용기와 담력 또한 비범했을 뿐

아니라 그분의 25년 짧은 생애를 슬쩍 훑어봐도 그 고매한
인품과 덕행은 가히 '성웅'으로 칭송되고 남을 위인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그분이 단순히 한국 최초의 사제(司祭)요 순교자
(殉教者)라 해서 무작정 높여 세우게 아니다. 물론 그 자
체로도 충분히 추앙받을 존재임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19세기 초 이 땅, 그리스도교 신앙의 불모지에서
사제가 되기 위해 나이 어린 15세에 벽안의 선교사에게 발
탁되어 낯설고 땅설은 이국 만리 '마카오' (당시 포르투갈령)
에 유학, 소위 신학문을 10여 성상 공부하시고 한국인으로
는 첫 번째로 신부(神父)가 되셨다. 그야말로 이 민족 최초
서양 유학생이자 탁덕(鐸德 선구자)이 되신 것이다.

처참한 박해 상황 속에 쓰신 신부님의 수많은 국내외 편
지와 문초과정에서만 봐도 그 분은 이미 라틴어, 불어, 영
어, 중국어 등에 능통하셨음이 드러났고, 관리들이 대 학
자로 생각하고 재능을 아까워한 나머지 살려두려 애썼던
모습에서도 그분의 뛰어난 면모를 느낄 수 있다.

더욱이 흑심한 탄압과 감시로 '금의환향' 은 커녕 수만리
중국대륙을 천신만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넘나들며
'이 민족구원과 참 삶' 을 위해 투신했던 용기와 열정은 우
리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또한 그분의 장렬한 유서와

사형장에서 외친 사목자(司牧者)로서의 충정과 의연담대함
은 신자뿐 아니라 모든 세인의 귀감이 되기도 남는다.(1846
년 9월 16일 순교)

오늘 우린 과연 그리 치열하게 살 수 있을까? '미사' 한번
봉헌하고 죽을듯한 자세로 다짐하던 초심(初心)은 다 어디
갔는가? 그렇게 확고한 신념(信念) 하나로 목숨 바쳐 공부
하고 목숨바쳐 육해풍파 헤치면서 선교하고 사목하고 목숨
바쳐 순교할 수 있을까?

특히 님의 순교 160주년을 기리는 이날, 부끄럼 맘으로
성웅 안드레아 신부님의 따뜻한 전구(轉求)를 삼가 빈다.

"신부님, 기록한 사제 이름 더럽히는 못나고 죄 많은 후배
들이오나, 주님 안에 당신 장한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대오분발할 수 있게 은총 빌어주십시오.
졸생(拙生) 두손 모읍니다."

숲머리 생각

50배 문제 : 오늘은



이상구
(도마)

감격의 순간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그들은 이렇게 성전 터가 놓인 것을 보고 목을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에즈 3,12)

인간에게는 희노애락의 감정의 파고가 있고 인생에도 변화의 격동기가 있다. 보통은 일상적인 것들의 반복이지만 평상을 뛰어넘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올 때면 인간은 그 폭을 다



것은 여간한 감격이 아니다. 잃어버렸던 하느님을 찾고 회상의 자리에 앉아있음은 지나온 세월을 보상받고도 남음이 있다. 자신을 찾고 뿌리를 찾은 감회가 깊다. 사람들은 너무나 좋

감당하지 못한다. 재난이나 불행이 닥칠 때 사람이 받는 충격은 크다. 반대로 축복이나 행운을 만날 때 받는 느낌도 비슷하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눈 앞에서 이루어질 때 사람은 현실을 의심하며 그 동안의 회포에 젖어 눈물짓는다.

바빌론 유배의 땅을 향할 때에만 해도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파괴와 폐허의 현장을 뒤로하며 비탄의 눈물을 흘렸던 그날이었다. 유배의 쓰라림 속에서도 눈물만 삼킬 뿐 희망은 없고 한 세대가 흘렸어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금 폐허의 땅 이스라엘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다. 성전 터가 놓여지고 정식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가문의 어른들 중에는 예전에 있었던 성전을 본 이들이 많았다. 오십 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다행히 살아서 돌아온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아득한 옛날이지만 추억의 현장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아서 환성을 울리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야훼님 어지셔라.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사랑 끝이 없으라.” 단순한 시편 노래가 아니다. 가슴에서 북받쳐 나오는 감사찬송이다. 귀환과 새 성전 공사의 감격에 나이 많은 노인들은 목을 놓아 울었다.

눈물과 기쁨이 뒤범벅된 이날의 감격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순간에도 찾기 힘든 진기한 광경이었다. 대 재난을 겪고도 회회의 순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늘이 낸 행운아들이다. 지옥의 뜨거운 불길을 체험한 후 천국의 지복을 맞이하는 행운과도 같다. 사는 동안의 고통과 재난은 견디면 보약이 된다. 이스라엘이 그랬듯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찾아 인내하는 자에게는 복락이 있다. 감격의 순간은 언젠가 찾아오는 법이다.

그림 : 박종구(바드리시오)



신앙밭 가꾸기

요즘 농촌에서는 밭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느라 한창이다. 우리 집 뒤의 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추와 깨 농사를 정성스럽게 한다. 이 노부부가 농사짓는 모습을 보면 ‘밭을 가꾼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온다.

작년 겨울, 할아버지는 밭에 있는 비닐이나 막대기 같은 것을 다 모으더니 모두 불태워서 밭을 깨끗하게 해놓았다. 그리고 이른 봄에 쇠똥을 한 무더기씩 쳐다 놓고 한 달쯤 지나니까 밭에 짝 퍼서 또 한 달 정도 두더니 그걸 뒤섞어서 밭고랑을 만들었다. 그리고 비닐을 고랑마다 씌운 뒤 고추 모종을 심고, 지춧대를 세워주었다.

우리 집은 바쁘다는 핑계로 밭을 그냥 놔두었다가 고추 심을 때가 되어서야 밭에 거름을 주려고 했더니, 최소한 보름 전에는 거름을 줘서 땅을 만들어놓고 심어야 한다고 했다. 그 기간을 거치지 않고 너무 빨리 심으면 식물이 자라지를 못한다. ‘아하, 마음



먹는다고 그때그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미리미리 밭을 만들어 놓아야 작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구나.’

세상만사가 다 그런 것 같다. 늘 바탕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늘 정성을 다해 살고, 내 마음을 다져놓고, 실력을 갖추어놓고, 밭을 잘 갈아놓으면 아무 때나 작물을 심어도 잘 자랄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늘 신앙을 갈고 닦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때, 떳떳하지 않을까? 오늘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축일을 맞아 그분의 순교직전의 최후증언을 읽어본다.

“이제 내가 죽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이 바야흐로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도 사후에 행복하려면 천주를 믿으시오.”

그분의 신앙밭을 들여다보며 나의 신앙밭도 잘 가꾸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이덕자(안젤라) ·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입당송 시편 47(46),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지혜 1,13-15;2,23-24

회답송 시편 30(29), 2와 4,5-6,11-12,7 과 13,4 (◎ 2,7,4)

◎ 주님,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기에, 제가 주님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2독서 2 코린8,7,9,13-15

복음 환호송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도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5,21-43(또는 5,21-24,35-43)

영성체송 시편 103(102),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여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맞을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일들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여러 형태의 가정폭력을 적당히 묻어두었음을 시인해야 한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몇 대 때릴 수도 있다.’ ‘요즘은 남자들도 맞고 사는데’ ‘고통스러워도 애들 봐서 참고 살아야 한다’ 등등 이런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맞을 짓이란 없는 것이며, 가정폭력은 살인을 부르기까지 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개인의 성장을 해치고 폭력사회 문화를 조장하는 범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은 온 세상보다 더 소중한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몰고 우리로 돌아오고 있다.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스레 우리 안으로 인도하던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진 것을 깨닫는다. 그 목자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 골짜기와 산등성이를 넘어서 오랜 시간 양을 찾던 목자는 드디어 혼자 남겨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양 한마리를 찾는다. 그 때 그 목자가 찾은 양 한마리는 그가 이미 우리 안으로 인도한 그 모든 양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소중한 양일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상처입고,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친정집이나 친척집을 갈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



지난해 12월 15일에 열린 성가정의 집 축복식에서 이병호 주교와 지역 인사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고통의 근원인 가정에서부터 피신하는 일일 것이다. 폭력의 근원으로부터 빠져나와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취하고, 그들의 엉클어진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알고 계십니까? 성가정의 집”

2005년 12월 이병호 빈첸시오 주교님을 비롯한 교구 내 많은 신부님들과 지역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군산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작지만 따스한 집을 축복하기 위해서였다. 성가정의 집은 여성들의 쉼터로써 특히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그들이 처했던 심리적 신체적 피해로부터 일정기간 보호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원래의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집이다. 이곳은 2004년 4월 건축을 시작해서 2005년 4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가를 받고 같은 해 5월 완공되었다. 성민호 신부님이 설립하고, ‘착한목자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집이 계획되고 지어져서 문을 열게 되기까지도 많은 분들의 물심양면으로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집이 원래의 지어진 목적대로 맡은바 사명을 완수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분들의 기도, 그리고 수고와 노력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정리 : 김동욱(세실리아)



육체는 세월의 표지

“

하느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육체, 바로 이 육체로 '말씀'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

'육체'는 구체적인 인격입니다. 육체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세월의 표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사람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어린이들과 원기 왕성한 사춘기 청소년들과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노인들입니다. 육체는 세월의 표지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육체는 실질적인 인간 상황이요 죄를 안고 있는 인간이며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 사는 인간이고 막다른 골목에 처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육체는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육체, 이 허약한 육체, 시작과 끝이 있는 육체, 아프고 죽는 육체, 죄를 짓는 육체, 하느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육체, 바로 이 육체로 '말씀'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오스카 A.로메로 대주교 강론 말씀 중 (1980년 조국 엘살바도르의 민중과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침)



사진 : 위로부터 서석희, 강운구, 윤주영, 정유경 順

기도와 말씀에 맞들이기 생활화

'숲정'은 이번달부터 '본당탐방' 코너를 신설, 매월 한차례씩 교구내 본당 한곳씩을 선정해 소개한다. 이 코너를 통해 본당의 발자취, 교세현황, 제단체 활동, 사목 방향 등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이웃 본당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으로 삼고자 한다.



이사정 주임신부

신동 성당의 발자취

익산 신동 성당은 금년에 본당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스무 살이 되면 성인례를 치르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듯이 신동 본당 공동체는 이제 익산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탄탄하고 내실 있는 천주교회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신동 성당은 지난 1986년 자치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창인동·영등동 성당에서 분리되어 전

세로 얻은 남중동 지하 50평 건물에서 등지를 틀었다.

당시 7개 구역 952명이었던 신동 공동체는 20년이 지난 지금 28개 구역 898세대 2,246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인근에 원불교 세계 총본부와 많은 교당 그리고 원광대학이 있어 원불교 교세가 가장 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동 성당은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처럼, 거대한 원불교 교세에 많은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신자들은 "우리가 먼저 화합하고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며 미사 후 차 나누기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아파트나 상가가 적은 주택지역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아 지역적으로 정체성이 되어있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도 고령화되어 가고 전출자가 전입자 보다 많아 신자수가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신앙의 뜨거운 바람도 둔화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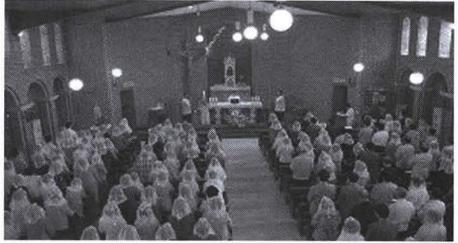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는 공동체

2003년 1월, 신동성당에 부임한 이사정 신부님의 사목의 중심에는 '기도'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성체 조배실'을 꾸미고 신자들에게 기도의 생활화를 강조하며 당신이 몸소 시간 나는 데로 조배실을 찾았다고 한다. 금년 사순절에는 신부님과 신자들이 새벽 6시에 함께 성체 조배실에 모여 성무일도를 바치는 뜻깊은 기도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1년간 미사 전에 30분 동안 모든 신자가 성경을 함께 읽으며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어 왔고 본당 달력에는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당일 읽어야 할 성경의 내용을 적어 1년 동안 성경을 완독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 교구 내 본당에서는 최초로 8주간에 걸친 '성체 신심 세미나'를 개최하여 3백 여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5월에 '성모신심 세미나'를 대대적으로 열어 신자들이 영적인 만남을 마음껏 섭



취하고 믿음의 용량을 부쩍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부부 일치 운동인 M. E. 교육에 지속적으로 신자들을 보내고 있으며 신부님에게 눈 도장이 찍힌 부부는 어떤 이유로든 M. E. 교육에 참가하게 된다고.

이렇게 신앙으로 다져진 때문인지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신동 성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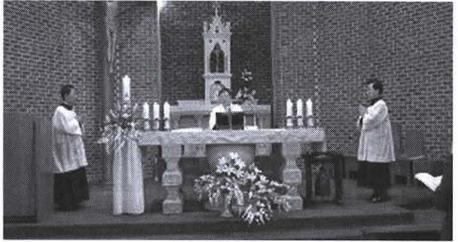
이웃사랑 실천과 어르신 사목

‘항상 웃고 활력 넘치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목 지침은 봉사활동으로 활짝 꽃피우고 있다.

근처 복지시설인 ‘무지개 가족’에 김장김치를 담가 ‘예수님 김치’로 전달하고, 익산 성모병원 ‘노인 돌봄의 집’과 ‘작은 자매의 집’ 그리고 근처 ‘글라라 수녀원’에서 꾸준히 봉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본당 설립 초창기에는 헌혈운동을 많이 벌여 위급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도 본당 신부님은 월 1~2회 헌혈을 하며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신다. 또 한가지 주목할 일은 교회 공동체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어르신을 위한 사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기자들을 따듯이 맞이하고 빈틈없는 자료를 만들어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이주철(야고보)사목회장과 박찬희(론나)여성 부회장, 그리고 20년 본당의 역사 안에서 함께 고민하며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온 원로들이 본당의 역사를 되새기며 감회에 젖는 모습은 이들의 깊은 신앙이 신동성당의 큰 버팀목으로 자리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매주 열리는 ‘어르신 성경 대학’은 현재 4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말씀에 맞닿으며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고 이분들에게 삶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고 한다.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

제 6대 주임인 이사정 신부님은 활력 있고 다부진 모습처럼 사목에도 큰 그림을 펼친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기쁘고 활발하게 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하고 이제는 꽃피고 열매 맺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뚝 서야겠지요.”라고 말하는 신부님은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현재 전북대 평생 교육원에서 웃음을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이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다가온다. 신부님은 미사 강론 중에 노래와 몸짓으로 잠깐씩 서로 마음을 열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신다. 그래서 즐거나 탄생을 부리는 신자는 없다고. 지치고 힘든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한바탕 웃으며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며 부단히 노력하는 신부님과 신자들의 모습이 이 지역을 복음의 빛으로 환히 밝히고 있었다.



취재: 신현숙, 오안라 기자 / 사진: 김영수 기자



● 교구 사제성화의 날 행사



지난 6월 23일(금) 오전 10시부터 전동성당에서 이병호 주교 및 교구사제단이 참석한 가운데 사제성화의 날 행사를 가졌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요한 15,15)'란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성시간 시간 중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사제들에게 보낸 서한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병호 주교 주례로 미사를 봉헌한 후 친교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이병호 주교는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특별히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자"면서 사제성화의 날을 통해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사제들이 서로에게 주님의 은총과 힘을 빌어주는 시간이 되자"고 하였다.

|홍보국 취재

● 나운2동 성당 본당의 날 행사 및 가족사진 콘테스트

나운2동 성당(주임=이영우 신부)은 6월 25일(주일) 신흥초등학교 강당에서 97명의 견진성사 및 본당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어진 본당의 날 행사에는 모든 신자들이 중고등부 그룹사운드 '쉐마'의 노래와 연주에 맞춰 하느님을 찬미하고, 각종 경기와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을 통하여 본당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제 1회 가족사진 콘테스트 시상 및 전시가 열려 신자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성가정 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콘테스트에는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듬뿍 담긴 총 36점의 사진이 출품되었다. 이 중 노환(베드로)·김진숙(올리아나)부부 가정과 김장섭(요셉)·이명숙(안나)부부 가정이 출품한 사진이 '성가정 상'을 받아 이병호 주교의 친필 '성가정 축복 기도문'을 받았다.

|신현숙, 오안라 기자

● 신동 성당 순교자의 모후 꼬미시움 레지오 단원교육



지난 6월 21일(수) 신동 성당(주임=이사정 신부)은 순교자의 모후 꼬미시움(단장=이동수)산하 레지오 단원 교육이 있었다. 시작 기도를 시작으로 나바위 성당 박찬길 신부의 '레지오 사도직'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홍보국 정리

● 전가대연 여름 농촌 봉사 활동



전가대연(전주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지도=주목성 신부) 회원 100여명은 지난 6월 26일(월) 오전 10시 신태인 성당에 모여 여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 후 여름 농촌활동 거리선전을 위해 신태인 시내를 경찰차량의 안내를 받아 줄지어 행진한 뒤 신기, 옥단, 태인 3곳 공소로 나눠 10일간 일일 8시간씩의 농촌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김진성 기자

● 호성동 성당 제 17회 본당의 날 행사

호성동 성당(주임=현유복 신부)은 지난 6월 25(주일) 전주 북초등학교 강당에서 남북통일 기원미사에 이어 제 17회 본당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남문문구도매센터

(교우분들 특별할인)

문구·사무용품·대형마트식 매장
주차장 완비, 배달 가능

대표 원수관(야고보)·심경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옆

☎(063)283-3352/ H·P 011-652-7721

백 마익스프레스

·포장이사·일반이사·용달사업부
·고층사다리보유·24시간 인부대기
·반포장·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익스프레스입니다.

이정환(마르코)·인정미(프란치스카)

☎(063)253-2452, H·P 019-678-2486
080-050-2482

전북 방사선과.건강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 암검진)
CT / 초음파 / 유방 / 갑상선 검사

효자동 국민은행 3층(228-6060)

원장: 임여선(루치아), 송하숙(야고보)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 초혼 - 재혼〉

이종관(도민교)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가톨릭 학생들을 위한
뉴질랜드 현지학교 체험

가격: 275만원(항공권 별도)

기간: 7월 22일~8월 19일까지

대상: 초,중,고생

주최: EDUCARE, 더니든 north교구

문의: 은 이삭(이사악) 011-9476-2421

www.educare-si.net

고급 생선(도매, 소매)

100번 수산

이복동(마테오) 이미숙(리디아)

삼천동 농협공판장(내)

227-7877 / 011-652-8045

- 행복 한 발 걸음 -

슈즈뱅크

신발의 모든것 / 품질·가격·서비스 대만족

발길마다 행복으로

삼천하이츠 정문앞 홀마트 옆 / 221-2003

김병락(대건 안드레아) 김현나(베로니카)

엠마오하우스 펜션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도 관광하시는 신자여러분의 여행을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차량 및 호텔, 펜션, 민박)

문의: 010-4733-5005,

064-752-6159

대표: 좌순옥(가말라)/고세영(영주 바오로)



제11회 성체현양대회 개최



지난 6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전주 치명자산성지 광장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봉사자협의회(회장=채수현) 주관으로 제11회 성체현양대회를 열었다.

‘예수 마음의 사랑이여 제 마음을 불사르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권민자 수녀의 주제강의와 2부 이병호 주교 주례의 장엄미사, 3부 성체행렬 및 성체강복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성체현양대회를 통해 주님께 대한 신심을 다시한번 돌우고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홍보국 취재



이상의 예비신자를 이끌기로 하였다. 성서교실과 신앙강좌, 선교를 위한 기도문 작성 및 포스터 제작 등 8단계에 걸쳐 선교운동을 한 결과 금년에 80명이 영세를 받은 이외에도 지금 32명이 보좌신부반에서 교리를 받고 있다.

|서송원 기자

각 구역별 먹거리 나눔 잔치, 초등부 어린이들의 꼭지점 댄스, 각 구역별로 친절, 사랑, 절제, 부활 등을 주제로 한 CF광고, 미니 올림픽, 경품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최정호 기자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2단계 교육



● 삼천동 성당 선교운동과 예비신자 환영식



삼천동 성당(주임=김병환 신부)은 지난 6월 18일 교중미사 중에 성탄영세 예비신자 50명의 환영식을 가졌다. 삼천동 성당은 올해를 본당선교의 해로 정하면서 1인 1명

지난 6월 7일(수)부터 4주에 걸쳐 삼천동 성당에서는 교구 사목국(국장=김광태 신부)에서 주관하는 전주, 김정고부, 임순남무진장 지역 함께 하는 여정 봉사자 2단계 교육이 진행되었다. 1강의; 가톨릭 교회 교리교육(강사=김광태 신부) 2강의; 소공동체의 참된 의미와 하느님의 일꾼(강사=김효철 신부) 3강의; 활성화의 역할 - 섬기는 봉사자(강사=김영수 신부) 4강의; 그룹운동을 위한 기술(강사=김영수 신부)의 주제로 열렸다.

|김동욱 기자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익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아)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응급전화 : 016-335-8175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옆)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

2007(안동)가톨릭상지대학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전문대학
 수시1학기 : 7월 13일(목)~22일(토)
 모집학과 안내 : (http://www.csangji.ac.kr)
 문의 : 054-851-3021~3 / fax : 054-851-3009

전·진·상 영성 사목센터
감마 영성 트레이너 기본 과정
 : 총체적인 단체운영 관리법과 리더십 훈련
 일시 : 7월 18일~20일(2박 3일 과정)
 문의 : 02-726-0710
 http://www.jiscon.or.kr

교통 사고 보상 상담
 손해사정인
 황 선 주 (프란치스코)
 ☎(063)236-1040
 H · P 011-659-4985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

2006년 여름
 북유럽 10박 11일 / 동유럽 7박 8일
 7월 30일 출발합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전 일 관 광
 조선 (안토니오)
 문의 : 063-288-6666

제주 성이시들 피정
 일시 : 8월 22~24일, 9월 2~4일,
 9월 20~23일
 장소 : 제주 성이시들 목장내
 신청 : 02-773-1455
 지도신부 : 임피제 파트리치오 신부



교구장 일정

- 남미 한국선교사회총회
7월 3일(월)~7일(금)까지
- 리마 한인성당 미사
7월 8일(토)~11일(화)

미사 · 행사 · 모임

- 교구 성직자 위령 월례미사
7월 3일(월) 오전 11시
- 재경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7월 3일(월) 오후 2시
- 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전주 월례미사
7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푸른군대)
7월 6일(목) 오전 10시 덕진
- 예비신학생 월모임
7월 9일(주일) 오후 1시 30분 윤호관
- 서전주 하나회 미사
7월 9일(주일) 오후 2시 삼천동
- 2006년 전주교구 가족캠프
8월 4일(금) 오후 7시~6일(주일) 오후 6시
주제 :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가족
대상 : 초(4~6학년), 중·고 자녀를 둔 가정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참가비 : 4인가족 기준 280,000원
신청마감 : 7월 8일(토)
접수 및 문의 : 285-0041(가정 사목)
입금 : 505-13-0312074 전북은행
예금주 : 천주교 유지재단

새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내역(6/18~6/24)
재경신우회 정병식 20,000
재경신우회 배광선 100,000
박명진 1,000,000

교육 · 피정 · 연수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 3차
7월 4일, 11일, 18일 매주(화) 오전 10시
주제 :
1일-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
2일-부모 · 자녀관계에서의 청소년
3일-청소년과의 대화의 다리
강사 : 박운자 / 장소 : 센터 3층
참가비 : 30,000원
문의 : 285-0041(가정사목국)
- 가톨릭신학원 성서연수와 2학기 모집안내
과정 : 신약 1편
(신약입문, 공관, 사도 바오로서간)
장소 : 전주본원 및 군산, 익산, 남원(신약 2편)
수강료 : 7만원
모집기간 : 6월 19일~9월 7일
문의 : 행정실 255-2678

기타

- 천주교 전주교구에서는 전주시 금상동 (舊소리개재)에 성당을 신축 (2005년 8월 말착공) 하면서 남골담을 분양합니다.
납골시설요금 :
160만원~200만원(개인실)
300만원~380만원(부부실)
분양문의 : 교구청 관리국 286-0091

-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기도' 발간 판매
-정가 : 1부당 2,000원
-할인가격 : 30부 이상 구매시 20% 할인,
50부 이상 구매 시 30% 할인
-문의처 : 교구청 사목국(285-0041~3)
* 본당 및 성물방에서는 사목국으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람, 달권 구입은 교구청 온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성소자(어름) 대피정
주제 : 부르심
일시 : 7월 7일(금)~9일(주일)
장소 : 경기도 여주 사도의모후 피정의 집
대상 : 수도성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여성분
문의 : 252-3398 전주 바오로딸 서원
- 성소자들을 위한 수도생활 체험학교
일시 : 7월 28일(금)~30일(주일)
장소 : 성베네딕도회
대상 : 사제, 수도 성소자(교고생이상)
문의 : 019-9353-2323(선착순 25명)
- 제 6차 전주교구 젊은이 성령묵상회
일시 : 7월 7일(금) 오후 4시~9일(주일)
장소 : 소양 해월리 피정의 집
회비 : 60,000원
문의 : 010-6792-9677, 011-9628-0931
-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성소자 피정
주제 : 길...
일시 : 7월 7일 오후 4시~ 9일(2박 3일)
장소 : 강원도 원주시 수녀원(본원)
문의 : 033-743-9781, 017-372-9781

문화의 향기

선교 훈련 시그마 코스

차동엽 신부 / 예우안젤리온 / 15,000원

차동엽 신부의 '선교훈련 시그마(Σ) 코스'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각종 선교 프로그램 장점을 모아 종합한 새로운 개념의 선교 훈련 프로그램으로, 선교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7월 천호피정

(2박 3일 피정)

일시 : 7월 15일(토)~17일(월)

주제 :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족'

지도 : 김영수 신부

가르멜 수도회 성소 피정

대상 : 고3이상 33세 미만 청년
일시 : 8월 14일(월)~8월 17일(목)
장소 : 마산 가르멜 수도회 피정의집
신청 : 010-6624-2625 / 032-542-2625
이나시오 수사
가르멜 성소 카페 : cafe.daum.net /
wowcarmel(in-ocd@hanmail.net)

이나시오 명상 캠프

일시 : 7월 15일~17일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이나시오 기도 방법을 배우고 싶은 미혼 남·녀
회비 : 학생(4만원), 일반(5만원)
문의 : 011-420-0268 예수수도회

살레시오회 성소피정

대상 : 고3, 일반(입회 대상자)
일시 : 7월 15일(토)~7월 17일(월)
장소 : 살레시오 내리 캠프장
신청 : 062-512-0332

젊은이 피정 '아름다운 나'

일시 : 7월 8일(토)~9일(일)
장소 : 강화도 피정의 집
회비 : 1만 5천원
문의 : 011-9653-8805, 02-463-8055
착한목자수녀회 · 착한목자관상수녀회

복자 몬테소리 교사교육 연구소

http://club.catholic.or.kr/bokjamon
여름특강 '수학영역 총정리'
일시 : 7월 7일(월)~8월 10일(목)
문의 : 02-707-2282

2006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 성소 캠프

◆ 대학생 · 직장인 남성 일반부
7월 15일(토) 오후 2시~17일(월) 오후 2시
◆ 중 · 고등학생(성소에 관심 있는자)
장소 : 경남산청 성심원 / 참가비 : 3만원
준비물 : 운동화, 여벌옷, 수영복, 세면도구, 필기도구, 쪽지
문의 : 010-7141-5549(이병우 신부)
02-6364-5500(http://www.ofm.or.kr)

작은예수수녀회 성소모임

주제 : 예수와 함께 살의 기쁨을!!
일시 : 2006년 7월 9일 오후 2시
장소 : 수녀회 본원
문의 : 02-462-7970, 011-9939-7970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희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사목회장: 김기창

◎ 여름신앙학교(21일~22일)를 위한 후원금 접수(사무실)
1. 오늘: ① 꾸리아 ② 성소후원회비 납부의 날 ③ 교황주일 2차 헌금
④ 상반기 사목감사
2. 금주 모임: ① 사목회 5일(수) 후 8시 ② 성시간, 성체강복 6일(목)
③ "신벤" 신학생밴드 공연 8일(토) 학생미사와 미사 후
3. 사무장 피정: 3일(월)~5일(수) 천호퍼정의 집: 기도해 주세요.
4. 제2차 성전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675,603단
5. 성전신축을 위한 가정 고리기도: 박정철 대건안드레아, 박귀덕 엘리사벳 가정 / 안영미 세실리아 가정
6. 성전신축 헌금: 아빌라의 데레사 100만, 김현이 50만, 익명 20만, 강복례 10만
7. 차주: 성모회
■ 지난주 봉헌금: 689,800원 ■ 교무금: 1,060,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상용
유지원: 324-3555 수녀원: 322-2399 사목회장: 김원태

◎ 성서읽기: 7월첫째주간: 유딧기9장-16장
◎ 본당50주년 묵주기도봉헌: 금주3,730단 제171,404단
◎ 첫영성체, 유아세례: 7월16일(일)교동미사중-사무실신청
◎ 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7월15일-17일
◎ 교황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성당청소: 7월8일(토)-다양1,2반
◎ 성체강복: 7월7일(금)10시 미사후
1. 모임: 사목회-교동미사후, 성심회-7월7일(금)10시미사후
2. 금주전례: 해설-이명숙, 독서-양호일 부부
봉헌-김영도, 남복희, 기도-심창호, 김순자
3. 차주전례: 해설-박영주, 독서-강원석, 임순옥
봉헌-이승희, 전이선, 기도-강미애, 함은화
■ 지난주 봉헌금: 488,700원 ■ 교무금: 590,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훈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사목회장: 정윤열
홈페이지: www.sccatholic.net

◎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납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 오늘교황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사무장 피정: 3(월)-5(수)사무실 쉽니다.
1. 금주모임: 여성분과, 요셉회-미사후, 구역장모임-5(수)전10시
제대회-7(금)미사후
2. 차주모임: 안나회-미사후,
3. 금주전례: 교중해설-박미숙, 독서-윤순일 김용기
4. 차주전례: 교중해설-송준신, 독서-신은희 이승택
5. 청 소: 금주-인자하신 동정녀Pr, 차주-사도들의 모후Pr.
6. 감사헌금: 장미선, 첫영성체 어린이들
7. 차량봉사: 금주-3조 차주-4조(안전운행)
■ 지난주 봉헌금: 926,500원 ■ 교무금: 915,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성팔
유지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사목회장: 양장석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마르 5, 41).
1. 모임안내: ①구역(반)장 모임 - 4일(화) 함께하는 여성 교육 후
②꾸리아 - 7일(금) 후 7시30분 ③성심부녀회 - 8일(토) 후 2시
④자모회 - 8일(토) 후 3시
2. 예비자 교리(마리아 수녀님 반):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3. 함께하는 여성 교육: 4일(화), 오전10시부터, 각 구역(반)장,
제대회원, 성심부녀회원등 여성 제단체회원
4. 성경 통독: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준비물 - 성경책과 필기도구.
5. 선교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현재 173,980단
6. 교황주일: 오늘은 2차헌금이 있습니다.
7.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총 수입 납입액: 장정열-60만(30만), 김종림-18만(8만)
박영선-12만(6만), 김부안-72만(36만), 박일생-36천(26천), 박선규-36만(14만)
박종철-144만(96만), 총 수입액 - 153,175,000원, 납입액 - 86,464,000원
■ 지난주 봉헌금: 1,654,450원 ■ 교무금: 1,742,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김태운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사목회장: 김길용
연락처: 433-3177 유지원: 433-2293

◎ 성경은 삶에 있어서 귀중한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2차헌금 있습니다)
1. 모 임: ① 2일(일) 꾸리아, 대전회, ② 5일(수) 안나회, 아브라함회,
③ 6일(목) 사목회, ④ 7일(금) 성체조배, ⑤ 9일(일) 이명서 베드로회
2. 2일(일) 대전회는 야외행사가 있으니 회원님들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광섭
F A X: 642-6319 사목회장: 변용섭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묵주기도 누계: 167,270단
2. 성서를 통독합니다.
3.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4. 병자봉성체 신청 받습니다.
5. 금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박태규, 김양래
차량봉사: 변용섭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 차주전례: 해설 - 문판이, 독서 - 박태규, 김양래
차량봉사: 김욱기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중준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사목회장: 신태근

1. 공소미사: 신병 - 5일(수) 후 8시, 강덕 - 차주 후 7시 30분
2. 성체강복: 6일(목) 후, 7시 30분 미사 후
3. 불성체: 7일(금) 전, 11시부터
4.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기금모금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일학교 문화탐방 및 성지순례: 참가할 학생은 사무실에 신청 하세요.
임시-7월 26일(수) ~ 29일까지
대상-초등부 3학년년부터 고등부까지 주일학교에 참석한 학생
(*주일학교 학생 가족 환영!), 회비-학생 2만원(가족은 문의바람)
신청마감-7월 16일(주일)
6. 모임: 꾸리아 - 오늘 교동미사 후, 만남의 방
사목회의 - 6일(목) 후, 8시 분도관
7. 구역모임: ①가리점 - 6일(목) 후, 8시 ②청용 - 7일(금) 후, 8시
③타치 - 8일(토) 후, 8시
8. 차주전례: 해설 - 윤영자, 독서 - 신태근, 이창호, 봉헌 - 조진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776,900원 ■ 교무금: 80,000원 ■ 2차 헌금: 229,0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정승현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사목회장: 이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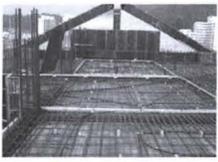
◎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이동 축일, 교황주일
1. 애령봉사회: 오늘(2일) 주일미사 후 교육관
2. 성모회: 오늘(2일) 주일미사 후 성당
3. 첫목요일 성체강복: 6일(목) 저녁미사 끝에
4. 사목회: 6일(목) 저녁미사 후 교육관에서
5. 첫목요일 성시간: 7일(금) 저녁 10:11 성체조배실에서
6. 반모임: 7일(금) 신동1, 신동2, 동남동, 서동 구역
7. 주간 축일: 3일 성 도마 사도 축일 8. 다음 주일: 애령봉사회, 성모회
9. 다음주일 전례담당: 우연태, 김중환, 이경춘, 김세진, 구경창
10. 가톨릭센터 신축 성금: 조춘영, 고성기, 박인서, 강신원, 엄정선
11. 감사헌금: 양승현 30만
12. 인도네시아 지진피해를 위한 이차헌금: 1,286,200원
■ 지난주 봉헌금: 690,140원 ■ 교무금: 340,00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전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사목회장: 박동표

◎ 오늘은 한국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안드레아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 오늘 교황주일 2차 헌금
1. 금주모임: 7월5일(수) - 저녁미사 후 사목회
2. 성체강복: 7월 6일(목) - 저녁미사 중
3. 금주참석공소: 덕산, 차주참석공소: 변암
4. 금주공소미사: 수반
5. 금주전례: 김호준(아오스당) 차주: 박덕순(루시아)
6. 금주독서: 정연수(가브리엘), 최선영(아가다)
차주독서: 박동표(요셉), 이옥주(누갈다)
7. 금주봉헌: 김삼석(필립보), 김옥순(말바라)
차주봉헌: 최봉철(요셉), 권봉조(리디아)
8. 차량봉사자: 금주 - 정용석(이냐시오) 차주 - 이지수(김대건안드레아)
■ 지난주 봉헌금: 339,750원 ■ 교무금: 635,000원

3. 가톨릭센터 신축 헌금 현황 : 총납입액 67,700,000원 중 53,000,000원 납입
4. 9일(일) 본당 105년사 편찬을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5. 105년사 후원: 선인동 공소, 송기호 바실리오
6. 금주봉헌: 구동수 베드로 부부
차주봉헌: 허현욱 요셉 부부
7. 성당청소: 8일(토) 은총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1,129,000원 ■ 교무금: 69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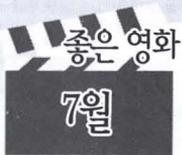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6년 6월 24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예산	납부액	비율
본당	15,000,000	6,107,857	40.72%
사제단	1,000,000	888,856	88.89%
개인 및 타지역 (특별헌금)	1,500,000	482,231	32.15%
수익사업	500,000	221,808	44.36%
합계	18,000,000	7,700,752	42.78%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삼례, 옥봉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우아동, 임실, 고창, 진안, 둔율동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 고산, 인후동, 황등, 서학동, 장계, 여산
- 새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배정액 50% 이상 납부한 본당 : 금암, 중앙, 오룡동, 월명동, 나바위, 용안, 신평, 신태인, 복자, 대야, 나운2동, 함열, 시기동, 수류, 팔마



일 시 : 7월 5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10분
 간식비 : 천원 지참

장르 : 다큐멘터리
 포맷 : DV
 제작년도 : 2006년 5월
 총연출 : 이마리오

볼타는 필름연대기-열여섯개 이야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21세기 문턱에서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하루에도 몇번씩 말도 안되는 사건들이 무작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하는 신앙인의 대답과 실천 없이 “오! 대한민국, 짹. 짹. 짹.”하며 자부심만 키울 것인가?

이 작품은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미디어 활동가들이 바라본 한국사회의 단면들이다.

과거에 벌어졌던 혹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사건들의 단면들을 재조합하여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16개의 이야기를 묶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며, 다양한 시각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시놉시스 - 대추리, 새만금, 즐기 세포, 화상 경마공원, 카지노 비정규직, 기류전자 양심적 병역거부, 사학법, APEC, WTO, 여성농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략적 유연성...

